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한국불교 홍보관 운영

8월 10일~9월 3일

법당·선방·문화체험관 등으로 나눠
자매결연·응원 등 서포터즈 활동도
종단별로 기간 정해 운영 책임지기로

대구 종단협·3개종단 합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동안 각국의 참가선수단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 개관한다.

대구종단협의회(회장 지성)는 5월 30일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갖고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중학교의 4개 교실에 불교관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교관은 외국인 불자선수들의 생활생활을 위한 법당,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선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체험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법당은 대회기간동안 24시간 무휴로 운영되며 태극, 일본, 베트남 등 불교 문화권 국가의 선수들을 위한 법회가 하루 2차례 봉행된다. 또 문화체험관에서는 한국불교 영상자료 상영, 다도 시연과 전통차 시음, 선 체험교실, 연꽃·연등 만들기, 선사화 전시회 등의 프로



대구종단협의회는 5월 30일 운영회의를 갖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교관 운영방법을 논의했다.

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불교관은 조계, 태고, 진각종 등 종단별로 기간을 정해 책임운영하며, 매일 스님 2명을 포함 모두 23명의 인내 및 운영요원과 통역관들

이 상주하면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각종 불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세계 8개

국어로 쓰여진 홍보물 배포로 한국불교문화 이해를 돕고, 연주·열쇠고리 등의 기념품 증정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불교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종단협의회는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불교관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기장에서의 응원은 물론 선수들을 사찰로 초청하는 등 외국 불교 단체와의 지속적인 후원과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소속 사찰들에게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동화사는 대회기간 중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해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연등 만들기, 서각시연, 참선, 사경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태고종 관암사도 종단차원의 대규모 영상단체를 대구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에서 봉행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전통 법음법파 등 우수한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규 기자 bak09@buddhapia.com



경산제석사는 3일 원효성사다례재를 개최했다.

원효성사 조사전 낙성

제석사, 진영·유물전시

원효성사 진영 및 관련 저술, 유물 유적이 전시될 조사전이 건립됐다.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은 3일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운영조 경산시장, 변태영 경신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성사 탄생1386주기 추모 다례제 및 조사전 낙성식을 개최했다. 원효성

사 조사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원효성사 진영에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책백다례원의 육백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과 민요한마당,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지는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법타스님은 다례제 법어에서 "원효성사의 원효회통한 화쟁사상의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분단이라는 민족의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규 기자

영남불교대, 전방 3부대에 도서관 불자들 수집한 도서 7천여권 기증

전방 부대에도 군 불자들을 위한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영남불교대학이 전방부대인 1사단 휘하 11연대 1대대, 59포병대대, 정비대대 등 3개 부대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고 5월 26일 밝혔다. 3개 부대 도서관에는 영남불교대 2천여 신도가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2개월간 모은

7천여권의 도서가 기증된다. 이번엔 영남불교대학 전방부대 도서관 개설은 56기 총무 박소현 불자의 아들인 조정해 소위(1사단 사령실 근무)가 "군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서관이 부대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와 성사된 것이다. 박원규 기자

통영 사암련, 연안어족 번식·보존 위한

수륙대재·방생법회 봉행

통영시사암연합회(회장 선곡)는 3일 양식어류 소비 촉진과 연안 어족 자원의 번식보호, 적체된 양식 어류 매입 방류를 위해 대대적인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실시했다.

통영시와 공동 주최한 통영 방생법회는 이날 관내 도남관광단지에서 쟁계사 조실 고산스님, 김동욱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김동진 통영시장, 정동태 통영시

의회의장 등 3000여명이 동참했다. 통영 8경에 포함된 2.5km 거리의 연화도 옹머리 인근 연안에 도착한 통영 사암연합회 회장 선곡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구입한 감성돔 4만마와 볼락 치어 33만1000마 등 모두 8000여만 원 상당의 양식어류를 옹머리 해안 일대에 방류해 자원 조성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새만금 순례단의 정성을 잇는 부산대법회 5월 31일 부산 시청앞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대법회 후 진행된 삼보일배 장면.

천성산·낙동강하구 살리기 새만금 삼보일배 정신 잇는다

부산녹색연합·부산정토회 등 300명 동참

65일 동안 진행된 '생명평화 기원 새만금 삼보일배 순례단'의 회합과 때를 같이해 부산에서도 대법회

와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5월 3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법회는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와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주최로 늘푸른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부산정토회, (사)대불청 부산지부 등 3백여 종교인과 시민이 동참했다.

대법회는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의 고행을 한 삼보일배 순례단의 정성을 부산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된 삼보일배에는 지율스님, 윤희동 신부를 비롯한 원불교 정녀, 수녀를 비롯 50여명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

가야산공원, 11월까지

국립공원 가야산을 탐방하면서 공원에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가야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과 백운동 일대를 탐방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 두가지를 운영할 계

획이다. '가야산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해인사 일주문부터 팔만대장경을 지나 학사대까지 탐방하면서 해인사의 역사 및 문화,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이 이 어진다.

'백운동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백운동 집단지설지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065)932-7810 박원규 기자

불자의 공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제·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 사 장 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창령/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문경/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489-9390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창원/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동해지사	동해/삼척	해동스님	033)521-6293 / 019-9767-6297
제천지국	제천/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3 5·6



특별기획 시리즈 '생명' 5 - 연재를 마쳐며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나

불화·살인의 시대인 오늘날 살아있는 현대인들의 생명이란 어떤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불교에서는 생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현대사회와 생명문제 일반에 대한 이해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나 - 생명에 대한 근원적 이해 해외자료/생명 연구, 어디까지 갔나 - 서양 불교학자들이 보는 불교 생명론리

미국에서 본 미국불교 - 미국인 불교수행자들의 불교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미국 불교를 내다보고 제대로 알고 보려면

집중진단/불교계의 기부문화 현황조사

불교계 진전에서는 기부문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고, 동·서양 문화의 차이에 의한 기부문화 양태의 동태를 통해 살펴본 불교계의 기부 실태를 점검한다.

불교계 진전에서는 기부문 어떻게 보나 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잘못된 이해 불자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실태와 발전방향

윤창화의 근대 불서 출판이야기

윤창화 서적을 평행한 만상화(138)와 인연호 스님

현장 속으로/이것이 '고연까지 지도 비파사나 10일 코스'다

어떻게 확실한 수행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아주중심으로 실천했다고 평한 우바킨·고연까지 비파사나 수행 10일 코스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한국불교계가 이 수행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불교에 던지는 수행 화두 고연까지 비파사나 10일 코스, 어떻게 진행된다 미니 인터뷰/보조원사 조지 시아오 선생

연극 속에서 만나는 불교

세익스피어의 작품 사극 '리처드 셋'이 보여주는 인과응보의 메시지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구래 회암사 효대사사자 성낙주의 소설은 은빛 여우의 슬픈 노래

각월간 불교의 문화 02-719-1855 www.kbpf.org